

여야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창구 마련하라”

교문위 문광부 업무보고
도종환 장관·김상곤 부총리
“평창올림픽 女 팀추월 조사”
“고은 시인 교과서 삭제 검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가 도마에 올랐으며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문화예술계 내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지난 20일에야 겨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관련 예산 3억원 증액 요청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문화예술인들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곳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대부분이 문화예술인”이라며 “굳이 이를 좌우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소위 좌파 예술인으로 지목된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부에서 내놓은 성폭력 예방대책도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급조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난해 실태조사는 대상도 너무 협소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장관은 “지난해 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문체계 성희롱 문제 때문에 실시한 것이며 이 때문에 대상이 협소해 보일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법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이른바 ‘왕따 논란’에 대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와 관련, 도 장관은 “진상을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빙상연맹이 이번 올림픽의 ‘옥에 티’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선 빙상연맹 자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후배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은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발행사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고은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광상도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데 이어 “고은 시인의 시는 중학교 교과서에 1개, 고등학교 교과서에 10개 등 총 11개가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저작권은 발행사가 갖고 있다”며 교과서 발행사와 삭제 여부를 논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최영호·민형배 ‘광주시장 경선’ 연대 가능성 시사

최 출마 기자회견 “공조 가능”...민 “문대통령 마케팅 않겠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연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386 운동권 세대’와 ‘시민사회 세력’의 연대가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 구청장은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선거 사무실도 함께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구청장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민 구청장과) 후보연대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온 문제, 시간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책적 부분에서 공조할 사안이 있으면 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구청장은 최근 선거 사무실을 같은 건물·같은 층을 함께 마련해 두 후보 간

공조·연대설이 구체화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정치적 지형이나 철학적 결, 가치가 비슷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방향과 노선이 같아 연대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민 구청장은 강기정 전 의원이 포함된 ‘3자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전 의원이 최근 제시했던 ‘강·최·민 3자 연대’에 대해 최 구청장은 “반이용섭 연대”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강 전 의원과) 동질성은 있지만 활동 영역과 무대와 주제가 달라 연대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 구청장과 민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한 차례 손을 잡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여



최영호 민형배

러차례 만나 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민 구청장은 “더 이상 ‘대통령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민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이 만든 모두의 대통령으로, 특정인의 소유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첫 번째 실천으로 호남특위위원장(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후원금 증가

광주·전남 박지원·이개호 順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후원금이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총모금액은 540억 9749만 4869원이었다. 1인당 평균모금액은 1억8092만 8076원이었다. 이는 2016년 이 비해 각각 1%, 0.7%가 늘어난 것이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21명)의 총모금액과 1인당 평균모금액은 각각 268억 8359만 6000원, 2억 2217만 6000원을 기록해 여야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민정당 박지원 의원이 3억 133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이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억 9880만 원, 민정당 김경진 의원이 2억 9852만 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2억 856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출마’ 이용섭 “일자리 혁명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7일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는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일자리 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일자리 혁명을 통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반열에 올라서고 일자리 걱정없는 광주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되면 노동 절약적 구조 조정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광주 공동체와 산학연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새로운 일자리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광주 경제를 떠받



치는 산업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이들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4차 산업혁명이 광주의 현안과 과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광주가 직면한 광주의 문제, 송정역 주변 활성화, 군 공항 이전 부지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 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군수 출마’ 박요주 출판기념회

6월 선거에서 보성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요주 전 광주지방국세청 국장이 다음달 3일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을 관할하는 국제로터리 3710지구 총재를 맡고 있는 박 전 국장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책 ‘언어의 귀향, 박요주가 희망을 말하다’를 통해 평소 자신의 행정 철학 등을 이야기 할 계획이다. 그는 “고향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며 “보성이 근무하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전 국장은 전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수료했다. 현재 박요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광주세무서 남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산구청장 출마’ 윤난실 “첫 여성 구청장 되겠다”

윤난실 전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6·13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 중인 윤 전 센터장은 27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광주 첫 여성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센터장은 “정치란 평범한 시민과 약자들을 더 잘 살게 하는 일”이라며 “지방과 시민이 약한, 왜소한 지방정치를 바꾸겠다”면서 “여성인데 되겠어?”



라는 회의를 ‘여성’이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꾸고, 나 역시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의미의 미투(me too) 희망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남구청장 출마’ 성현출 내달 4일 북 콘서트

6·13 지방선거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성현출 전 광주남구문화원장이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북 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통령후보 광주조직특보, 참여자치21 지방자치 전문위원, 새생명찾아주기 범시민운동본부 늘사랑공동체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



그는 광주 남구의회 3·4대 의원, 문재인대 시·구의원, 패널로 초청된 최종원 영화배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성 전 문화원장은 자신의 책 ‘아빠! 약속을 지켜줘’를 통해 20년 전 4살 딸과의 약속을 지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